꽃게어장 정화사업 효과 크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10일부터 연평도 꽃게어장 정화사업에 착수했다. 8월말까지 50여일간 지속된 연평도 꽃게어장 정화사업은 연평도 주변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 폐어망, 폐와이어 등 각종 침적 어구류를 수거하여 꽃게 산란장 보호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적 어장정화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항협회는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정화선 3척, 예인선 2척, 크레인 바지선 2척, 현지 어선 45척을 2개 선단으로 나눠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해양오염방제조합 정화선, 예인선, 부선 등을 각 1척씩으로 한 1개 선단을 추가로 투입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연평도는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접적지역인 동시에 낙도 오지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 어업인들 모두가 작업에 솔선수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6월 23일 현재 617톤의 침적 폐기물이 수거되는 등 순조로운 수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꽃게어장 정화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꽃게의 산란 및 서식장을 파괴시켜 어족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연평도는 해마다 꽃게잡이철이 되면 수많은 어선들이 대거 몰려드는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각종 폐어구 등으로 어획량에 영향을 줌은 물론 조업을 하는데도 적잖은 장해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정화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어획량 증가와 함께 조업에 장해를 주는 각종 어구 손망실 피해 예방 등 객관적인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어항협회는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북 울진군 앞바다 왕돌초 주변수역의 침체어망인양사업을 벌인 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올해 전년 대비 약 1.9배의 어획고를 올리는 획기적인 자원회복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연평도 꽃게어장 정화사업 역시 머지않아 그 효과가 이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침체된 폐어구로 인하여 꽃게들이 산란을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이는 결국 자원감소를 불러오고 나아가 어업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근본 요소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의식과 공감대가 어업인들 사이에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조업중 그물이나 어구가 뒤엉키면 고의로 이를 폐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이런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황금어장을 황폐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점을 중시, 시·군 관계자, 어업인, 그리고 중고교생들에게 이런 내용이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수산업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자원감소 때문이라면 더더욱 바다정화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지금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현장에 나가 작업중인 승선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내년 이맘 때쯤이면 지난해 울진 왕돌초 주변수역 침체어망인양작업의 효과처럼 연평도 수역 역시 꽃게 어장 정화사업의 효과로 꽃게 대풍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어장정화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노력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 (어촌어항소식)